

도내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전북도교육청, 2~6일 각 초등학교서 진행... 보호자도 반드시 참석해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5일간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취학대상은 만6세(2016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 아동(2017년 출생) 등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접수장소 및 시간

분산, 드라이빙 스루, 워킹스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소집일에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학교장은 화

상통화나 줌 등을 활용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예비소집 제출서류는 취학통지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증명서(비대면 참여시 아동 소재 확인 증명서류), 학교별 기타 요구 서류 등이다.

특히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대상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2차 예비소집 실시, 가정방문, 내교요청, 유선연락, 행정정보이용 등의 조치를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실시한다"면서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학교로 전화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진안 장승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이산에 올라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일출 보며 새해 소망 빌어

서거석 교육감, 진안 장승초 학생들과 마이산 등반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진안 장승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이산에 올라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과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은 이날 새벽 6시 30분쯤 마이산 북부 주차장을 출발해 쌓인 눈을 밟으며 천왕문에 올랐다.

학생들은 눈길과 긴 계단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이끌었고, 서 교육감도 학생들의 손을 잡고 보조를 맞췄다.

이날 서 교육감과 학생들은 겨울철 입산 통제로 산 정상이 아닌 천왕문까지 올랐다. 날이 흐려 해가 보이지 않았으나 일출 시각인 7시 40분에 맞춰 각자 새해 소망을 빌었다.

특히 암 환자를 위해 3년째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전현수 군(5년)은 "새해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까지 따는 게 꿈"이라면서 "새해에는 반드시 3급 시험에 합격하

고 싶다"고 말했다.

장승초 학생들은 등반의 힘든 과정을 통해 배려와 협력의 의미를 느끼고, 한 자리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이날 마이산 등반을 기획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학생들의 특별한 요청에 응해 함께 산에 오르게 됐다.

이날 등반에는 서 교육감과 학생들이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까지 30여 명이 함께했다.

서 교육감은 "새벽에 눈 쌓인 산을 오른 학생들이 대단스럽다"면서 "2023년은 학생들 모두 소중한 꿈을 만들어 내년의 꿈노트에 적고 그 꿈을 꼭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승초는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다가 학교를 살리자며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면서 지금은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로 자리를 잡았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김민 교수팀,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제어법 개발

광전소자에 적용 나노결정 구조적 특성 규명 연구...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2곳에 논문 게재

전북대학교 김민 교수팀(공대 화학공학부)이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성장과 형태를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 이를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광검출기, 태양전지)에 적용해 나노결정 구조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저널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IF: 8.067)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6.744) 온라인에 각각 게재됐다. 각 논문의 제1저자는 전북대학교 김미경, 차정범 석사과정 대학원생(에너지-AI 융합공학과)이다.

이에 따르면 김미경 대학원생은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와이어보다 우수한 단결정 특성을 보이는 나노로드 결정 합성 연구를 진행했다. 나노로드는 나노와이어가 형성된 후 측면 패킹 응집



김민 교수, 김미경 대학원생, 차정범 대학원생

과정과 오스트발트 숙성 메커니즘을 통해 합성된다. 이렇게 합성된 나노로드는 단결정 배합을 보이며, 광검출기 적용에서도 매우 뛰어난 특성을 보여줬다.

또 차정범 대학원생은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 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나노결정을 적용해 소자의 효율과 수명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

했다. 양자점 형태와 비교해 수 마이크로 길이의 나노와이어는 효과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들을 연결했고, 전자수송층으로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들은 1차원 구조 형태인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와이어, 나노막대의 합성방법을 제시하고, 나노결정의 도입을 통해 광전소자의 전하 수송 능력, 나노결정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김민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뛰어난 전하 수송 능력을

가지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서 여러 복합처리의 구조체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은 밴드갭에너지(Bandgap Energy) 제어가 쉽고, 90%에 육박하는 우수한 광발광 양자수율을 보여 차세대 광전소자로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자점은 크기가 10나노미터(nm) 내외로 매우 작아 빠른 전하 이동이 중요한 광전소자의 응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최근엔 나노와이어(Nanowire), 나노막대(Nanorod)와 같은 1차원 나노 결정은 광전소자에 적용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나노와이어의 폭은 양자점처럼 작지만, 길이 방향으로 빠른 전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은성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온브랜드 프로모션 기획전' 무료 진행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도영)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2월 19일까지 다관(전시 2관)에서 '온브랜드 프로모션 기획전'을 진행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당에 따르면 '온브랜드'는 전주의 '전(全)'과 전주의 옛 명칭인 완산의 '완(完)'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완전하다'에서 비롯돼 '완'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탄생했다.

이는 2008년 '전통공예의 현대화'를 목표로 시작됐다. 전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오늘날의 멋과 가치를 재해석한 작품들은 무형문화재 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1호 한지발장 유배근, 제45호 지우산장 유규상, 제10호 선지장 방화선, 목가리 이진부, 소목 장세환, 옷칠 김난희 작가와 디자이너 정소이(보머스디자인) 대표, 백종환(WGNB) 대표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한편, 다관(전시 1관)에서는 지역 공예작가 양성을 위해 진행된 '2022 아트상품 개발사업'의 결과물 전시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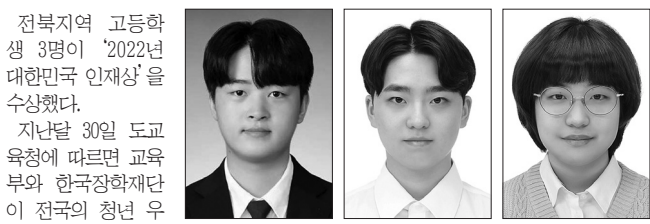
김도영 원장은 "온브랜드는 백제 궁실을 모사한 '검이불루 화이불치'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콘셉트로 개발됐다"며 "오늘날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롭게 꽃피운 공예문화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도내 고등학생 3명 '대한민국 인재상' 받았다

전북기계공고김태영·군산기계공고박미르·함열여고오소연 학생



김태영, 박미르, 오소연

전북지역 고등학생 3명이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전국의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해 격려·시상하는 '2022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내에서는 김태영·박미르·오소연 학생이 선정됐다.

먼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태영 학생(3년)은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미이스터고 경진대회 수상 등을 수상하며 기계 정비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스코 생산기술직 인재 채용에 합격한 예비

끝으로 함열여자고등학교 오소연 학생(3년)은 제3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꾸준히 발명대회에 참가해 학생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통령상 수상자인 '계단 타는 위커'는 대진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에 상설 전시되기도 했다.

한편 '2022년 대한민국 인재상'은 전국에서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청년 일반 5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했다. 수상자들은 표창과 상금 및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받는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장은성기자

호원대 치위생학과 19학번, 국가고시 100% 합격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19학번 재학생 전원이 제5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5,575명이 응시해 4,575명이 합격해 82.1%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는 전북권의 유일한 4년제로, 입학 후 졸업까지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를 함께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창의 및 혁신 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혜원 학과장은 "차별화 된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해 일대일 맞춤형 집중 지도를 통한 교수진의 헌신적인 지도와 치위생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전공교육과정에 있다"며 "교수들의 지도에 믿음과 신뢰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무식을 지난달 30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진행했다.

태권도진흥재단, 2022년 중무식 가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무식을 지난달 30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진행했다.

중무식은 업무유공자 표창과 임직원 간 승진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올해 재단과 태권도원이 거둔 성과 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재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및 단계 경영실적 평가 양호,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기관 재인증' 등 우수한 대의 평가를 얻었다. 또한 태권도원은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 선정과 '웰니스 관광지' 지정, 청소년 이용 권장시설 지정 등 태권도를 통한 문화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특히, 태권도원 방문객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24만 여명, 매출액 역시 140% 증가한 33억여 원을 달성하는 등 철저한 방역과 안전을 기본으로 한 가운데 플레이원, 태권스테이,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등 신규 콘텐츠를 다수 도입하며 코로나19 이전의 방문객과 매출액 회복에 다가갔다.

오응환 이사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개혁과 혁신, 노사화합, 지역 상생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등 수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재단과 지회사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빛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2023년에도 토끼와 같이 열심히 뛰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 개혁과 혁신 그리고 국가 태권도 활성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성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통학버스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주)은 지난달 30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통학버스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

기 위함이다.

이번에 설치된 차량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빈도가 높은 통학버스 8대로, △학생 통학 지원 및 현장 체험 학습 증가에 따른 차량 이동 간 학생 및 교직원 위급 상황 대비 △통학버스 운행 지역 주민 위급 상황 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향후 관내 모든 통학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

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이상 운영자, 운전자, 안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교육장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응급 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예술회관 상반기 수시대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전라북도예술회관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교육장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응급 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난 상반기 정기대관 잔여 전시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개방하는 산마루(23평)를 포함해 기스타1(95평), 기스타2(42평), 차옴1(67평), 차옴2(41평), 미라네(66평) 등 총 6개 전시실이 있다.

/장은성기자